

목포시, 지중화사업 설계 누락에 ‘이중 굴착’ 졸속 행정

갑자옥모자점 일원 내년까지 26억 투입
사전협의에도 가로등 신설-지중화 분리
상권 밀집 구역 굴착 장기화 영업 피해
추가 비용 소요 “예산 낭비 전형” 비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구도심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대규모 전선 매설 사업 과정에서 연계 시설물 공정이 누락돼 동일 구간 도로를 다시 파헤쳐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

는 등 전형적인 예산 낭비·졸속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11일 목포시에 따르면 도시재생뉴딜·근대역 사문화공간 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갑자옥모자점-목포천막사, 기업은행-진도선구 등 2개 구간 가공선로를 지중화하고 전주를 철거하는 공사를 한국전력공사와 공동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는 28억9천500만원으로 1구간 14억3천 600만원, 2구간 12억5천900만원이 투입되며 도로 포장 복구비 10억3천만원은 시가 별도 부담한다.
문제는 가로등 신설·기존 시설 철거 공사가 당

초 지중화 사업과 완전히 분리된 후속 공정으로 밀려났다는 점이다.
시 세부 추진 계획상 2025년 10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2구간 지중화 공사를 마친 뒤 2026년 1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가로등 공사를 별도 진행 한다. 이어 2027년 3·4월 한전 전주 철거, 5월 이후 포장 복구 순으로 이뤄진다.
이처럼 공정이 쪼개지며 이미 매설 작업이 끝난 도로를 재차 굴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상권이 촘촘히 밀집한 근대역사문화공간 특성 상 도로 굴착이 반복될 경우 차량·보행자 통행 불편은 물론, 상점 접근성 저하로 상인들의 영업

피해가 불가피하다.
앞서 시는 2019·2020년 44억원을 투입, 1897개 항문화거리 지중화사업을 추진해 1.9km 구간 지중화를 완료한 바 있다.
대규모 유사 공사 경험이 있음에도 설계 단계에서 가로등 등 필수 연계 시설을 종합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해 ‘행정 난맥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23년 3월 시 건설과·도시문화재과·한전·통신사 실무진이 간담회를 열어 지선 굴착에 따른 노후 하수관로 파손 방지, 도로 침하 예방 등 굴착 관련 사항을 논의했음에도 가로등 공사 일정을 연계하지 않은 것은 탁상행정이자 부실

기획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역 상인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설계 과정에 가로등 공사가 제외된 경위와 한전 등 관계 기관과의 사전 조율 내용, 이중 굴착으로 인해 추가 낭비되는 전체 예산 규모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목포시 관계자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동 통장·자생조직 회원 등과 함께 졸속히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반영해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무안군, 양파껍질 고부가 제품화 新소득 창출 박차

(주)초록당 협력 ‘초코아미’ 등 2종 선풍
농진청·서울대 산학협력단 기술 접목
케르세틴 성분 함유 폐기물 신규가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농산 폐기물 로 버려지던 양파껍질을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며 지역 농산물 신소득 창출 과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11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초록당과 지역 특산물·부산물 기능성분 상품화 시제품 평가·시음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농촌진흥청·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특 하·기술이전 성과를 기반으로 개발한 양파껍질 시제품 완성도를 점검하고 상품화 방향을 모색 했다.



농진청·농업기술원·농협 로컬푸드·가공업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시제품 2종을 심층 평가했다.
공개된 제품은 양파껍질 추출물에 코코아·단 백질을 배합한 스틱형 ‘어니언 초코아미’와 기 존 제품 풍미를 보완한 음료형 ‘어니언 마시는

넛또다’.
양파껍질은 케르세틴 성분을 다량 함유해 식 품 소재 활용 가치가 높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단순 폐기돼 왔다.
군은 양파껍질을 신규 가공 소재로 전환해 사 업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사업 수행 기관인 초록 당은 가공 장비·포장 라인 구축 등 양산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참석자를 대상으로 외관·향미·포장 디자인 관능 평가·종합 토론회를 진행했다. 수렴된 전문가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품 품질 을 정밀 보완하고 연령대별 소비 특성을 반영한 판매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무안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버려지던 양 파껍질 부가가치를 높여 새로운 농산업 가능성 을 확장하겠다”며 “소비자 품평·유통망 연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무안 양파 활용 가치·경쟁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안=김상호 기자



강진군 한 농업인이 맥류 줄뿌림 파종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월동작물 판로 확보 당부

보리·쌀귀리 등 계약재배 권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은 11일 “가을철 월동작물 파종·정식 시기를 앞두고 보리·쌀귀 리·마늘·양파 재배 농가에 계약재배를 통한 사 전 판로 확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월동작물은 수확기에 물량이 집중되거나 수 요 대비 생산량이 늘면 가격 하락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년에 단가가 높았다는 이유로 판로 없이 먼 적을 늘리면 수확 후 매입처 부재로 건조·보관 비용 등 농가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군은 파종 전 농협·가공업체와 구매 수요·매 입 물량을 사전 확인하고 계약재배로 재배 면적 ·출하 계획을 확정할 것을 권고했다.
계약 체결 시 매입 능력·거래 실적을 사전 확 인하고 구두 약속 대신 서면 계약으로 거래 조 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품목·약정 물량·수매 가격·대금 지급일 등을 정하고 기상재해·작황 변동에 따른 계약 불이 행 처리 기준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김경국 농정과장은 “월동작물 농사는 파종 전 판매처와 거래 조건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해 야 한다”며 “수확 후 판매 곤란을 막기 위해 서 면 계약재배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 부했다.
/강진=박길종 기자

신안군, 민선 9기 50개 핵심 공약 확정

농어촌 르네상스 등 5대 분야 집중
열린군수실 게재 분기별 이행 관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은 11일 “민선 9 기 출범 100일을 기점으로 군민 참여를 통해 마 련한 50개 핵심 공약 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약은 지난 6월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군정 인수·인계지원 TF단 검토와 부서 협의를 거쳐 이달 1일 공약이행평가단 정밀 진단을 통해 완 성됐다.
세부 과제는 농어촌 르네상스 구현, 육상·해 상 교통 혁신, 복지·의료 체계 개선, 체류형 관

광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도약 등 5대 분야 50개 사업이다.
주요 사업으로 택배비 지원 확대, 맞춤형 농 기계 보급, 광역교통망 구축, 공영버스 전면 무 료화, 흑산공항 조기 착공, 아동양육수당 지급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교통과 의료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현장

밀착형 사업과 농수산업·신재생에너지 중심 미 래 성장 동력 확보에 무게를 뒀다.
군은 확정된 공약 실천 계획을 군 홈페이지 열린군수실에 게재했다. 향후 분기별 추진 상황 을 공개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을 통해 이행 과정 을 관리할 방침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현장 과제와 군민 소득 증대 방안을 핵심 공약에 온전히 담아냈다”며 “피부보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직결되도 록 세부 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 했다.
/신안=양훈 기자

영암군, 현장 밀착 통합돌봄 강화
전담 인력 배치 맞춤형 지원망 구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은 11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 해 최근 전담 인력 14명을 일선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전담 인력은 읍·면·보건소 등 현장에서 돌봄 필요 대상자를 발굴하고 상담과 개인별 지원계 획 수립,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등 대상자 중심 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군은 2025년 1월 전국 읍 단위 최초로 통합돌 봄 전담조직인 ‘통합돌봄추진단’을 신설하고 복지·보건·의료·요양 등 분야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전담인력 배치를 계기로 읍·면의 대상자 발 굴과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군과 읍·면, 보건소,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군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적응·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간담회를 함께 추진해 복지 서비스 실행 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유미경 통합돌봄추진단장은 “통합돌봄은 돌 봄이 필요한 군민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빨리 찾아내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중 요하다”며 “전담인력 배치로 읍·면 현장의 역 할을 강화하고 군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영암형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나주천연염색문화재단이 최근 ‘2026나주영산강축제’에서 시민·전문예술인 합동 기획 천연염색 런웨이 무대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나주시 제공>

나주영산강축제 ‘천연염색 런웨이’ 눈길

전문·시민모델 합동 기획·연출
일상복 아트마켓서 직거래 연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는 11일 “나주천 연염색문화재단이 최근 2026 나주영산강축제 일원에서 시민과 전문예술인이 합동 기획한 천 연염색 런웨이 무대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김경란·박영자·신재범·임채림 디자이너가

특별 제작한 의상을 전문모델과 시민모델이 동 반 착용하고 무대에 올랐다.
시민모델은 행사에 앞서 전문모델 박동선으 로부터 위강·자세·무대 표현법 등 실전 교육을 이수하고 본 무대에 투입돼 색채·소재 특성을 반영한 동선을 연출했다.
출품작은 천연염색 고유 형태를 살린 전통 한 복·예복부터 실용성을 강조한 일상복까지 다채 롭게 준비됐다. 자연색과 질감을 살려 전통 기

법을 현대 패션 산업으로 확장하는 기술력을 증 명했다. 특히 무대에서 공개된 일상복 일부는 축제장 내 천연염색 페스타존 아트마켓에서 구 매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이밖에 천연염색문화재단은 축제 기간 천연 염색 페스타존을 상시 개방해 무료 체험·전시·쉼터 등 무대 행사를 병행 운영한다.
천연염색문화재단 이사장인 윤병태 나주시 장은 “시민 주도 런웨이 기획으로 천연염색 산 업 다각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전통문화를 일상에서 소비하고 즐기는 복합 문화콘텐츠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완도 ‘장보고 수산물축제’ 新명칭 공모
해양체험형 행사 개편…16일까지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은 11일 “지역 대 표 축제인 장보고 수산물 축제를 해양 체험형 행사로 개편하고 오는 16일까지 신규 명칭 공모 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청정 바다 체험, 바다낚시, 전복 먹거리, 야간 공연 등을 융합해 전 세대가 체류하는 해 양관광 브랜드로 육성할 방침이다.
공모 명칭은 지역 특색과 행사 정체성을 반영 한 대중적이고 참신한 문구면 가능하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완도군 누리집 에서 제안서를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작은 상징성·지역 대표성·대중성·독창 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1명(30만원), 장려 2명(각 10만원) 등 총 4명을 선정해 시상한다.
김신 완도군수는 “지역 매력이 담기고 누구 나 한번 들으면 기억할 수 있는 축제 명칭이 나 오길 기대하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새로운 이름과 콘텐츠 로 축제를 단장해 관광객 유입과 지역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